

매월 발간되는 「선협월보」 내용을 보다 유익하고, 알차게 꾸미기 위해 3월호부터 회원사를 소개하는 '회사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코너는 회원사 여러분의 지면입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서비스현황 등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협회 담당자(hgyang@shipowners.or.kr)에게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지면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 바다를 생각하면 한진해운이 보입니다 —

“바다와 함께 하는 한진해운”

한진해운의 어제와 오늘

■ 한진해운의 탄생

▶고 조중훈 회장의 어린시절 꿈은 '해운왕'

한국 유일의 육해공 종합물류그룹인 한진그룹의 계열사 중에서 바다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는 한진해운의 태동은 창업주 고 趙重勳 회장의 젊은 시절 꿈에서 비롯된다. 청년시절 고 趙重勳회장은 海技士로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일원을 향해 하면서 '海運王'을 꿈꾸었다.

바다에서 꿈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7년부터. 이해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해운진흥법이 개정, 공포된 해로 한국 해운에 있어서는 일대 전환기였는데, 해운업 진출의 기회를 찾고 있던 고 趙重勳 회장에 의해 大進海運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이무렵 고 趙重勳회장은 컨테이너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는 66년 월남 쿠논항에 정착해 있던 철도의 기관차 만한 큰 궤적을 잔뜩 실은 미국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있는 것을 본 뒤였다.

수 십톤이나 되는 큰 컨테이너 상자들을 Gantry

Crane이라는 특수크레인 이 2분에 한개씩 척척 부두에 내려놓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해상운송의 혁명임을 직감하고 컨테이너선 사업을 구상하게 된다.



한진해운 조수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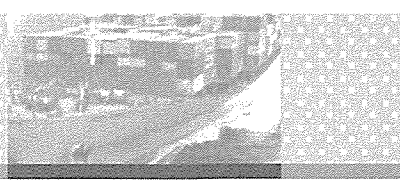
▶지난 72년에 컨테이너선 신조발주

그후 72년 3천5백톤급 컨테이너선을 일본에 발주, 그중 하나를 '仁旺1號'로 명명하고 부산-고베간 항로에 투입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컨테이너선 운항의 嚆矢이다.

그후 대진해운은 수산업 실패 등의 여파로 고전하다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바다에 대한 꿈은 지난 77년 5월 해상운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韓進海運의 설립과 함께 다시 이어지게 된다.

▶한진해운 77년에 해상운송 전문업체로 출범

1970년대는 한국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수출입 물동량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수출지상주 정책의 절정기이자 수출 100억불



달성을 이룬 77년 당시에는 국적선 적취율이 33%로 많은 물량이 외국선사에 의해 수송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운장려 정책을 수립, 많은 선사들이 활발히 설립되던 때였다. 이때 ‘海運立國’이라는 강렬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던 고 趙重勳 회장의 일념에 의해 한진해운이 출범하게 된다.

그래서 화물수송과는 거리가 멀었던 원양어업에 주력하고 있었던 대진해운을 해체하고 77년 5월 16일 최초 자본금 3천만원으로 별도의 법인인 (주)한진해운(Hanjin Container Lines)이 설립되었다.

■ 한진해운의 단계별 발전 과정

1950년 창립된 대한해운 공사의 한국 해운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늘날 국내 최대는 물론 세계적인 선사로 성장한 한진해운은 종합 일관 수송 체제를 확립, 현재 35개국 80여 항구를 기항하여, 전세계 6,000여 목적지로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고 조중훈 회장이 수송입국(輸送立國)이라는 창립이념 이래 설립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수출입화물 및 기간산업용 원자재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수송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세계교역 증진에 기여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70년대 후반 중동과 미주항로 개척

한진해운은 1978년에서 1980년까지 신항로 개

척에 나서, 중동항로를 개설한 이래, 79년 미주 항로에 진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성장의 나래를 폈다. 그 뒤 지속적인 신형선 투입, 국적선사 최초의 전용 터미널 개장 및 미 대륙 횡단 2단계 열차 서비스, 월드와이드한 온라인 전산 시스템 운영 등을 거쳐, 1980년대 후반 세계 5대 선사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해운 불황 속에서도 펜들럼 항로를 비롯한 항로의 다양화 및 LNG 수송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사세를 비약적으로 확장, 명실 상부한 세계 일류 선사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부문에서 화주에게 보다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최대 항로인 북미항로 등 주요항로에 주간 정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92년 한국 최초로 4,000TEU급의 적재 능력을 지닌 초대형 풀 컨테이너선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선복 공급과 정시 운항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2004년 현재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주력 선대는 5,600TEU급 선박을 포함한 평균 선령 3년의 4,000TEU급 이상 선박들이며, 세계적인 제휴그룹의 리더로서 지구촌 어느 곳이든 서비스가 가능한 최고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에는 정기선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중국의 코스콘, 대만의 양밍, 일본의 K-line, 독일의 세나토사 등 세계 유수선사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전략적 제휴인 ‘CKYHS그룹’ 결성을 추진해 세계 해운 산업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포항제철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국가기간산업용 원자재를 운송하는 전용선 서비스를 비롯해 전세계를 커버하는 부정기 서비스, 동남아 및 중동 지역에 정기선을 운항하는 정기



선 서비스를 운항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멤브레인 타입의 한진 평택호 등 4척의 LNG선은 연간 250만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있다.

극심한 시장경쟁 속에서 한진해운은 해상수송과 물류 분야에서 글로벌한 선박운영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주요 거점항만 전용터미널 확보운영

한진해운은 현재 국적 선사로는 유일하게 롱비치, 시애틀, 동경, 오사카, 오클랜드, 카오슝 등지에 6개 해외 전용터미널과 국내 광양, 부산의 감천, 감만 등 3개 전용터미널을 확보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세계 주요 거점항에 신규터미널을 확보 운영함으로써 화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한진해운은 지상과 지상, 지상과 선박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신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리얼타임으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5월 새롭게 출범한 정보통신 자회사인 "사이버로지텍"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계 유수의 13개 선사와 제휴하여 해운종합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인 "GT넥서스"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세계 해운 이비지니스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세계 4~5위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

고 조중훈 회장에 의해 탄생한 한진해운은 2002년 11월 조중훈 회장 타계로 2003년 7월 조수호 회장이 취임, 거함 '한진해운' 호를 이끌며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내실경영을 추구함으로써 세계 일류 종합물류회사로 도약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2003년에 매출 5조5천억원 이상, 순이익 3,308억원 이상 규모로 국내 최대는 물론 컨테이너 선복량 세계 5위권의 종합물류 기업으로 오늘날 벌크 전용 선사인 거양해운, 독일의 세나토사, 정보통신 자회사인 사이버로지텍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현재 140여척의 지배선단으로 종합 일관 수송 체제를 구축하여 35개국 80여 항구, 전 세계 6,000여 목적지로 연간 270만 TEU 이상의

한진해운 주요 연혁

설립 및 상호변경

- 1949년 대한해운공사 창립
- 1977년 한진해운 설립(조중훈 회장)
- 1987년 대한해운공사(대한상선)의 한진그룹 인수
- 1988년 대한상선, 한진해운의 합병 및 한진해운으로 상호변경

항로 개척 등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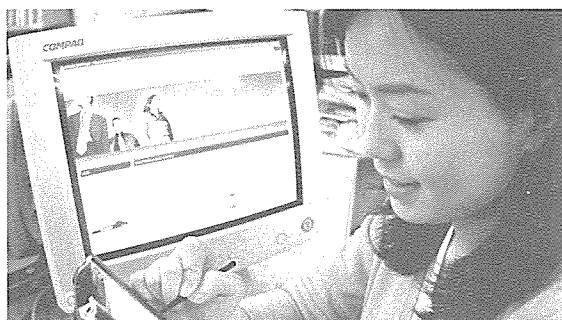
- 1950~70년 한·일, 동남아, 북미항로 개설, 포철·한전의 전략물자 수송개시
- 1970년대 플컨테이너선에 의한 미주 구주 정기항로 운항개시
- 1995년 거양해운 인수, LNG선 운항 개시(동양최초 멤브레인형)
- 1996년 조수호 부회장, 금탑 산업 훈장 수훈
- 1997년 독일선사 세나토사 인수
- 2000년 정보통신 자회사 "사이버로지텍" 설립 한국무역협회 등 최우수선사 선정 한국최초 컨테이너 운송량 200만 TEU 돌파
- 2001년 세계 해운종합 포털사이트 GT넥서스 참여 (세계 12개사와 제휴)
- 2002년 세계 최대 제휴그룹인 CKYHS그룹 주도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미 롱비치 터미널 개장/운영
한국해운학회 선정 이비지니스 대상
노동부 선정 안전경영대상 서비스부분 최우수상
- 2003년 조수호 회장 취임
최원표 사장 선임
5,5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 투입
- 2004년 6500TEU급 컨테이너선(사선) 발주 및 금융서명식(1/12)



한진해운의 미래 비전

▶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한진해운

한진해운은 국가경제발전과 함께 해운업계를 지향하는 경영이념으로 창립되었으며 「완벽주의(完璧主義)를 바탕으로 한 신뢰경영(信賴經營)」이라는 경영철학으로 전세계의 多國籍의 고객이 항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주 및 회사 전구성원으로 부터 가장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LNG선 사업 및 해외각지에서의 터미널사업, 그리고 최근에 착수한 물류 IT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미래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 2010년에는 전세계를 커버하는 정기항로 운영

오는 2010년에는 전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정기항로를 운영하고, 국내외 주요항구 및 물류거점 지역에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등 해상운송 및 종합물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응비해 나갈 계획이다.

컨테이너 화물과 5,400만톤 이상의 벌크화물 등 연간 1억톤 이상의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 “세계에서 가장 신뢰 받는 종합물류 회사”로 부각되고 있다.

■ 한진해운의 위상

▶ 한진해운 매출액기준 세계 4위에 올라

한진해운은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정기선 항로 취항선사들 가운데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선사로 성장했다.

세계 상위 5대선사 매출액 현황

순위	선사	매출액
1	머스크시랜드그룹	99억불
2	NYK(일본)	92억불
3	MOL(일본)	72억불
4	한진해운그룹	55억불
5	APL/NOL	47억불

▶ 정기선대 규모로는 세계 5위

한진해운은 또 세계정기항로에 취항중인 컨테이너선사들 가운데 선대규모가 세계 5위에 랭크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 각국의 화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세계일류 해운기업으로서 타선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세계 상위 5대선사 선대규모 현황

순위	선사	적재능력
1	머스크시랜드	875천TEU
2	엠에스시(스위스)	525천TEU
3	에버그린(대만)	438천TEU
4	피엔오(영+네델란드)	421천TEU
5	한진해운	313천TEU

한진해운의 최대 강점은 개척정신과 고객만족

▶중국 시장 개척 선두주자

한중 국교수립(92년도) 이전인 지난 1989년 중국 지역에 대리점을 지정하여 Feeder Service를 개시함으로써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진해운은 이후 95년에 외국선사로서는 최초로 Sinotrans사와의 공동운항으로 중국-유럽 직항로(CEX : China Europe Express), 96년 한국선사 최초로 중국-북미 직항로(CAX : China America Express)를 개설 운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물동량 증가 등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서비스를 개설하고 직기항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선대를 5,000TEU급 이상 선박으로 교체 투입하여 선대 대형화 작업을 완료했다.

▶종합물류기반 구축

— 세계 주요항만 전용터미널 확보

1986년 시애틀 전용터미널을 개장함으로써 한국선사로 최초로 해외 전용터미널 시대를 연 한진해운은 이후 롱비치, 오사카, 도쿄, 카오슝, 세계 주요항만에 전용터미널을 확보하여 물류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2001년에는 오클랜드 터미널을 신규 개장하여 롱비치, 시애틀과 미 서안의 3대 주요 물류기지에 전용터미널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시애틀 터미널의 대규모 확장계약을 체결하여 11만평 규모의 터미널로 탈바꿈 2004년 개장 예정이며, 2002년 9월에는 국내 최대의 터미널인 부산 신선대 부두(약 30만평)보다 더 큰 46만평의 롱비치 신규 터미널의 개장하는 등 해외물류 전진기지의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는 부산 감천/감만 터미널 및 광양

터미널등 총 3개의 전용터미널을 확보하여 HUB-PORT로 가동하고 있으며, 2001년 5월 세계 최대의 독립 항만운영 업체인 HPH(Hutchison International Port Holding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10% 지분으로 광양항 신규 11개 선석공사의 투자회사로 참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허브 항만 개발에 나섰다.

— 미주내륙 물류서비스 확충

2001년 4월 한진해운의 미주 내륙운송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미주 내륙운송의 요충지인 시카고에 한진 로지스틱(Hanjin Logistic Inc)를 설립하여 미 내륙운송 판매에 직접 나서 등 공격경영을 강화했다.

▶세계 최우수선사 ⇒ 세계 고객만족 박차

한진해운은 정시성, 안정성, 고객만족 등 우수내 서비스 제공으로 세계 주요 단체로부터 서비스 최우수선사에 선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영국의 저명 해운지 LOYD'S LOADING LIST지, 세계적인 슈퍼체인인 미국의 타겟(Target Corp)사, 영국의 유력 물류업체인 엑셀(EXEL Logistics), 미국 최대의 대중 신발업체인 페이리스 슈 소스(Payless Shoesource Inc)사 등으로 부터 잇달아 '최우수 선사' 상을 받았고, 재정경제부 후원 '주주중시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유력 연구기관, 화주등을 총망라하여 당사의 고객 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전략적제휴를 통한 세계 수준 경쟁력 확보

한진해운은 95년부터 독일의 세나토社, 유나이티드 아랍쉬핑(중동)과 제휴하여 세계 제3대 제휴그룹인 '유나이티드 얼라이언스' 그룹을 결성하여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Global Service Network)를 구축, 세계시장을 공략해 왔으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세계 정기선 해운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



으로 2001년부터는 중국 코스콘, 일본 케이라인, 대만 양밍선사 등과 제휴, 세계 최대 전략적 제휴인 'CKYH' 그룹을 주도적으로 결성하였다.

▶세계 해운 이비지니스 선도

한진해운(www.hanjin.com)의 IT 전략의 핵심은 e-비지니스를 근간으로 한 정보통신 자회사와 E-commerce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망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세계적인 선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세계 해운 산업의 e-Business를 주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2000년 5월 정보통신 자회사인 '사이버로지텍'을 설립하여 국내외에서 지명도있는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해운 및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다기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운 물류 부문에서 한층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진해운은 2001년 세계적인 선사와 본격적인 해운관련 포털사이트에 주도적으로 참여 세계 해운 e-Business를 선도하고 있다.

동사 외에도 미국 APL, 캐나다 CP Ships, 대만 양밍, 일본 MOL, 일본 K-Line, 독일 Senator lines, 현대상선, 이스라엘 ZIM 등 13개 글로벌 선사와 미국의 소프트웨어 전문 벤처기업인 TRADIANT사가 합작하여 해운포털사이트인 GT 넥서스(Global Transportation Nexue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진해운은 사단법인 한국해운물류학회로부터 해운부문 'e-비즈니스' 대상을 2년 연속 수상, 운송서비스부문 뿐만 아니라 on-line 서비스면에서도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고객 맞춤 서비스를 목표로 e-비즈니스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와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료제공 한진해운

신뢰경영을 추구하는 한진해운의 경영이념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해운입국을 지향

한진해운은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해운입국을 지향하는 경영이념으로 창립되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이고 남북분단으로 북쪽도 가로막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나 자원이 빈약하여 대외교역에 의존하여 성장하여야 할 우리나라의 여건상 해운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현재 한진해운의 고객은 한국만이 아니며 전세계의 시장이 우리의 고객이 되었으며 세계의 한진해운으로 성장하였다.

▶완벽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뢰경영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통해 세계인의 신뢰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오늘의 한진해운의 경영이념은 "완벽주의(完璧主義)를 바탕으로 한 신뢰경영(信賴經營)"이라는 경영철학이며, 전세계 다국적의 고객이 항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주, 파트너 및 회사 전 구성원으로부터 가장 신뢰 받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한진해운은 가치중심의 경영, 서비스중심의 경영, 안전과 지식경영을 핵심 실천 전략으로 설정하여 "세계인이 신뢰하는 종합물류기업"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